

## 조선어의 뜻비슷한말에 대한 의미해석

박사 부교수 장 혁 철

### 1. 서 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조선말은 표현이 매우 풍부하여 어떤 복잡하고 다양한 사상감정이든지 능히 섬세하게 나타낼수 있다.》(《김정일전집》 제20권 320페이지)

조선어가 복잡한 사상과 섬세한 감정을 다 나타낼수 있는 우수성을 가지고있는것은 뜻비슷한말과 같은 어휘구성의 요소들이 풍부한것과 적지 않게 관련되어있다.

조선어에서 뜻비슷한말은 수량적으로 매우 풍부할뿐아니라 사물현상의 미세한 차이, 인간의 감정정서적느낌의 미묘한 빛깔까지도 잘 드러내여 표현할수 있다.

뜻비슷한말에 대한 연구를 보다 원리적으로 깊이있게 진행하는것은 우선 아름답고 섬세한 조선어를 정확히 살려쓰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요구이다.

조선어에서 뜻비슷한말은 동일한 사물, 현상에 대하여 각이한 측면에서 정밀하게 나타내는 어휘적수단인것으로 하여 매 단어들의 의미차이를 구체화, 세분화하는것은 풍부하고 다양한 문장을 만들기 위한 중요한 조건으로 된다. 그것은 이러한 단어들이 의미의 풍부성과 정밀성으로부터 서로 같은 의미계열에서 미세한 차이를 가지고 각이한 문장구성에 참가하는 사정과 관련된다.

뜻비슷한말에 대한 연구를 보다 원리적으로 깊이있게 진행하는것은 또한 외국인들에 대한 조선어교육에서도 필수적인 요구로 나선다.

조선어를 배우는 외국인들에게서 제일 어려운것의 하나가 뜻비슷한말을 정확히 가려 쓰는 문제이다.

외국인들의 조선어단어사용에서 나타나는 오류가운데서 그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뜻이 비슷한 단어를 옳게 구별하여 쓰지 못하는데서 오는 결함이다. 어휘교육에서 뜻비슷한말에 대한 교육은 단어의 정확한 사용의 측면에서뿐아니라 어휘소유량을 늘이고 의미습득의 효과성을 높이는 측면에서도 의의가 있다.

지난 시기 뜻비슷한말에 대한 연구는 주로 뜻같은말의 연구범위안에서 비교적 제한적으로 진행되였다.

뜻비슷한말을 뜻같은말의 한 갈래로 취급하는것이 보편적인 견해로 인정되어왔으며 뜻비슷한말을 따로 설정한 경우에도 극히 협소하게 논의되고 독자적인 어휘적갈래로서 뜻비슷한말의 개념과 의미구조, 구조적부류 등에 대하여서는 언급되지 못하였다.

조선어의 표현이 풍부한것은 뜻비슷한말의 풍부성과 같은 표현수단의 량적측면과도 관련되어있지만 질적측면에서 의미의 동의적측면과 미세한 차이성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있는것과도 중요하게 관련되어있다.

이로부터 뜻비슷한말은 언어표현에서 섬세성과 다양성을 보장하는 중요한 어휘수단으로 쓰일뿐아니라 사전편찬과 언어교육에서도 널리 쓰이고있다.

뜻같은말과 뜻비슷한말을 구분해야 할 근거는 첫째로, 어휘론과 사전편찬론에서 이

두 개념에 대한 이해가 서로 다른 것과 관련된다.

우선 선행한 어휘론에서는 뜻같은말에 뜻비슷한말을 포함시켜 논의해왔다.

- 《뜻같은말이란 단어의 말소리는 다르나 뜻에 있어서는 서로 같거나 비슷한 단어들을 말한다.》(《어휘론》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주체75(1986).)
- 《뜻같은말이란 발음은 다르지만 뜻이 같거나 비슷한 단어를 말한다.》(《언어학 개론》 김형직사범대학출판사, 주체95(2006).)
- 《뜻같은말이란 말소리구성은 전혀 다르지만 뜻에 있어서는 서로 같거나 비슷한 단어들을 말한다.》(《어휘론》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주체98(2009).)

뜻같은말에 대한 우와 같은 견해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ㄱ. 뜻같은말은 말소리구성이 서로 다른 둘이상의 단어들 사이에 설정된다.
- ㄴ. 뜻같은말은 뜻이 같거나 비슷한 단어들이다.

이것은 뜻같은말이 뜻비슷한말까지도 포괄하는 넓은 개념을 담고있다는것을 말해준다.

《조선말대사전》(증보판)(사회과학출판사, 주체96(2007).)에서 뜻같은말과 관련한 올림말들과 뜻풀이항목을 보면 다음과 같다.

동의어 (同義語) [명] ⇒ 뜻같은말.

뜻같은말 [명] 《언어》 단어들 사이에 소리는 서로 다른데 뜻이 꼭 같거나 비슷한 단어. 《높이다》와 《제고하다》, 《고요하다》와 《조용하다》와 같은 것이 이에 속한다.

우의 뜻풀이항목들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알수 있다.

- ㄷ. 《동의어》의 다듬은말이 《뜻같은말》이다.
- ㄹ. 《뜻같은말》은 언어학분야의 전문용어이다.

이것은 뜻같은말을 《동의어》라는 용어와의 밀접한 련관속에서 함께 논의하여야 한다는것을 말해준다.

조선어사전들에서 《동의어》라는 말이 제일먼저 오른것은 주체45(1956)년 과학원출판사에서 편찬한 《조선어소사전》이다. 그후 주체50(1961)년에 출판된 《조선말사전》(과학원출판사)에서도 《동의어》만 올렸을뿐 《뜻같은말》은 없었다.

주체70(1981)년 과학, 백과사전출판사에서 편찬한 《현대조선말사전》에는 《동의어》와 《뜻같은말》이 다 올랐는데 그 풀이에서는 일련의 차이가 있었다.

뜻같은말[명] 《언어》 뜻이 서로 같은 단어들, 감정정서적뜻빛같은 서로 다르나 같은 대상이나 성질, 움직임 등을 나타내는 단어들이 포함된다.

동의어[명] 《언어》 소리는 서로 다른데 뜻이 같거나 비슷한 단어.

주체70(1981)년 과학, 백과사전출판사에서 편찬한 《현대조선말사전》에서는 《뜻같은말》에 대하여 절대적뜻같은말과 문체론적뜻같은말로 규정하였으며 《동의어》에 대하여서는 종전의 리론을 그대로 인정하였다.

그후에 나온 《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주체81(1992).)에서부터는 당시까지 써오던 《뜻같은말》과 《동의어》를 같은 용어로 보고 《동의어》는 쓰지 말아야 할 말로 《×》표식을 주고 올림말로 올리지 않았다.

현재 뜻같은말을 전문적으로 다루어 수록한 사전으로는 《조선 동의어, 반의어, 동음어사전》(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주체82(1993).)이 있다.

이 사전은 뜻같은말이 가지는 미세한 뜻차이를 인정하고 그것을 명확히 대조하여 밝

히는 원칙에서 편찬하였다.

여기서 주목되는것은 사전의 출판년대를 놓고볼 때 쓰지 말아야 할 말로 되어있던 《동의어》라는 용어를 여전히 사용하면서 사전을 편찬한것이다. 주체81(1992)년 《조선말대사전》이 출판된 이후에 나온 사전인데 《뜻같은말》이라는 용어를 피한것은 사전편찬자들이 《뜻같은말》과 《동의어》의 개념을 같은것으로 보지 않았다는것을 의미한다.

뜻같은말과 뜻비슷한말을 구분하여 쓴것은 그후 사전편찬학에서 두드러지게 표현되었다.

《우리 말에는 뜻같은말과 뜻비슷한말이 풍부하게 발전되어있어 복잡한 사상과 다양한 감정을 정확하고 섬세하게 표현하는 힘있는 수단으로 리용되고있다. 뜻같은말과 뜻비슷한말은 어휘적뜻의 공통성과 류사성에 의하여 서로 바뀌 쓰인다.》(《조선어사전편찬론》 사회과학출판사, 주체94(2005).)

이렇게 놓고보면 일반뜻풀이사전들에서는 뜻같은말과 뜻비슷한말을 서로 독자적인 어휘부류로 인정하고있으며 이것은 선행어휘론의 《뜻같은말》의 개념과는 일정한 차이가 있다는것을 알수 있다.

결국 선행어휘론에서는 《동의어 = 뜻같은말 + 뜻비슷한말》이라고 규정해놓았지만 실지 사전학에서는 《동의어 = 뜻같은말》로 인정하고있었다. 다시말하여 뜻같은말과 뜻비슷한말을 포함관계로가 아니라 동등한 지위에 놓고 논의하였던것이다.

뜻같은말과 뜻비슷한말을 구분해야 할 근거는 둘째로, 선행어휘론에서 뜻같은말의 개념을 타당성있게 정의하지 못한것과 관련된다.

대체로 뜻같은말에 대하여 뜻이 같거나 비슷한 단어부류라고 한 정의는 뜻이 같은 단어들도 의미하고 뜻이 비슷한 단어들도 의미한다는 말로서 정밀한 규정이라고 말하기 어렵다. 게다가 뜻이 비슷한 단어들을 따로 뜻비슷한말이라고 정의한 조건에서 뜻같은말에 대한 개념정의는 다시 논의해볼 가치가 있는것이다.

지금까지는 뜻같은말에 뜻이 완전히 같은 단어들뿐아니라 뜻이 비슷한 단어들까지 포함되는 근거를 크게 두가지 측면에서 들었다.

근거는 우선 조선어에 뜻이 완전히 똑같은 단어가 얼마 되지 않으며 그나마도 언어발전의 합법칙적과정에 그중의 어느 하나가 사멸되기때문에 이른바 완전뜻같은말이라는 것은 크게 의의가 없다는것이다.

뜻같은말이라고 명명하였으면 그에 대한 정의도 뜻이 같은 단어들로 되어야지 이러한 단어들이 언어생활에서 의의가 없거나 량적으로 얼마 되지 않는다고 하여 다른 부류의 단어들까지 끌어들이는것은 개념설정에서 과학적인것이 아니다.

뜻같은말은 어디까지나 뜻이 같은 어휘적부류이며 더우기 뜻이 비슷한 어휘적부류가 따로 존재하는 조건에서 한 언어체계안에서 뜻이 비슷한 단어들이 뜻비슷한말로도 되고 뜻같은말로도 된다는것은 아무래도 무리가 아닐수 없다.

근거는 또한 뜻같은말의 개념을 설정하는 목적이 동일한 개념에 대한 사람들의 미세한 표현적지향이 어떻게 단어들에 반영되고있는가를 밝혀내는데 있다고 본데 있다.

물론 동일한 대상에 대하여서도 사람마다 서로 대하는 립장과 감정정서상태는 서로 다르다. 이로 하여 하나의 대상에 대하여 같은 개념으로 인식하면서도 서로 다른 립장과 태도로 대하는 사람들의 지향은 그대로 단어에 반영되게 된다.

그러나 동일한 개념이나 동일한 대상에 대한 언어적표현이 반드시 뜻같은말이라고만 찍어 규정하기는 어렵다.

실례로 동일한 대상인 어머니에 대하여 대하는 태도와 립장에 따라 《어머님》 또는 《엄마》 등으로 표현할수 있는데 이때 《어머님》이나 《엄마》는 존경이나 친밀감 등에 따라 구별되어 나오는 뜻비슷한말들이다.

이처럼 뜻같은말에 뜻이 꼭같은 단어부류뿐아니라 뜻이 비슷한 단어들까지 포함시키는 견해는 일련의 문제점들을 가지고있다.

뜻같은말과 뜻비슷한말을 구분해야 할 근거는 셋째로, 학술용어로서 뜻비슷한말설정의 실천적의의와 관련된다.

뜻같은말과 뜻비슷한말을 따로 구분하는것은 단순한 이론적인 문제인것이 아니라 현시기 언어생활에서 제기되는 실천적인 문제이다.

그것은 우선 《뜻같은말》이나 《뜻비슷한말》이라는 단어들의 어휘적성격과 관련된다.

《뜻같은말》, 《뜻비슷한말》이라는 말은 다 언어학분야에서 쓰이는 학술용어들이다.

학술용어의 의미론적특성에서 기본을 이루는것은 단의성이다.

학술용어는 바로 단 하나의 뜻을 가지고있으며 그러면서도 그것을 매우 정확하게 규정한 뜻내용을 가지고있다. 뿐만아니라 학술용어는 뜻폭이 매우 좁다. 그것은 뜻폭이 좁으면 좁을수록 학술용어의 뜻내용이 매우 정밀하여 과학성을 보장할수 있기때문이다.

이렇게 놓고볼 때 《뜻이 꼭같거나 비슷한 단어》라는 뜻같은말에 대한 정의는 학술용어의 특성과 거리가 멀다고 볼수 있다. 더우기 현실적으로 조선어의 어휘구성에서 뜻이 꼭같은 단어부류와 뜻이 비슷한 단어부류가 명백히 구분되어있는 조건에서 구태여 이 두 부류를 하나의 개념으로 총괄해야 할 필요는 없는것이다.

뜻같은말과 뜻비슷한말을 구분해야 할 근거는 넷째로, 현시기 언어생활의 실태와도 관련되기때문이다.

지금까지 어휘규범사전으로 리용되어오는 《조선말대사전》(주체81(1992))이나 《조선말대사전》(증보판)(주체95(2006))에서는 뜻같은말에 대하여 《말소리는 서로 다르지만 뜻이 꼭같거나 비슷한 단어》라고 정의하고는 그 실례로 뜻이 비슷한 단어들인 《높이다》와 《제고하다》, 《고요하다》와 《조용하다》만을 들고 뜻이 꼭같은 단어부류는 들지 않았다. 즉 뜻비슷한말만을 실례로 들고 뜻같은말은 들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사전전반에서 올림말들에 대한 뜻같은말들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뜻이 꼭같은 단어들(즉 뜻같은말)만을 《=》 또는 《☉》부호를 사용하여 밝히고 뜻이 비슷한 단어들은 올리지 않았다.

어휘규범사전으로서 올림말의 정의를 두가지로 해놓고 실지 편찬에서는 우와 같이 일관성을 보장하지 못하는것은 사전편찬사업의 특성과도 관련되겠지만 뜻같은말과 뜻비슷한말을 사전편찬론에서는 선행어휘론과 다르게 설정하고있는것과 관련된다.

선행어휘론은 대상과 개념이 같으면 그 뜻도 같다는 개념위주의 의미리론에 바탕을 두고있다면 사전편찬론에서는 개념은 뜻의 중요한 구성요소라는 관점에 바탕을 두고있다. 이것은 전형적인 한두개의 단어들의 뜻을 놓고 설명하는 어휘론과 몇십만에 달하는 단어들의 뜻을 하나하나 따져가며 풀이하는 사전편찬실천의 차이를 그대로 반영한것이다.

지난 시기에 뜻같은말에 넣고 논의하던 단어부류들을 뜻비슷한말에 소속시켜 논의하는것은 결코 뜻같은말의 지위를 약화시키고 뜻비슷한말의 의의를 강조하자는데 있는것이 아니라 조선어의 어휘구성체계에 맞게 어휘부류들을 정확히 구분하고 언어생활에 적극 이바지하도록 하자는데 목적이 있다.

## 2. 본 론

뜻비슷한말의 본질에 대한 과학적인 리해를 가지는데서는 뜻비슷한말의 본질적특성을 의미구조적측면과 제선의 견지에서 해명하는것이 필요하다. 그것은 뜻비슷한말이 의미적공통성에 따라 이루어진 의미적련관어이기때문이다.

뜻비슷한말의 본질적특성은 첫째로, 기본뜻이나 갈라진 뜻이 서로 겹쳐지는 겹침의 의미구조를 이루고있다는데 있다.

이것은 의미구조의 견지에서 뜻비슷한말의 특성을 논의한것이다.

일반적으로 의미적으로 서로 동질성을 가진 어휘부류들은 자기의 고유한 의미구조를 가진다. 어휘들 호상간에 동질성을 이루는 기본요소는 의미구조이다.

어휘의미는 우선 의미구조의 측면에서 볼 때 실질적의미와 파생적의미, 관계적의미로 구분된다.

실질적의미는 말뿌리가 담당한 의미이고 그에 상대하여 단어조성접사가 덧붙여 가지는 의미는 파생적의미이다.

관계적의미는 단어의 문법적변화 즉 단어나 어휘에 토가 붙거나 기타 수법에 따라 가지는 문법적의미이다.

어휘의미는 또한 문장과 문맥속에서 노는 역할의 정도에 따라 기본의미와 갈라진의미로 분류된다.

기본의미는 어휘가 가지고있는 주되는 뜻이며 갈라진의미는 기본뜻에서 새끼쳐나온 뜻이다.

어휘의 기본의미는 갈라진의미의 원천으로 될뿐아니라 문장이나 문맥속에서 쓰일 때에도 가장 높은 사용빈도를 가지며 사전편찬에서나 국어교육에서도 첫번째 순위에서 놓고 해석된다. 때문에 일반적으로 임의의 어휘의 의미를 1차적으로 설명하거나 표상이 떠오르는것은 기본의미이다. 그러나 갈라진의미는 글줄속에서 문맥이나 정황의 도움속에서만 파악되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기본의미와 갈라진의미 그리고 뜻빛갈(기본뜻은 같으나 감정정서적색채의 차이에 따라 구별되는 어휘의미적현상)은 일반적으로 가지는 의미구조이면서 그것이 뜻비슷한말들의 련관구조를 이룰 때 그 기초에 놓인다. 다시말하여 서로 다른 어휘들이 뜻비슷한말들로 묶어지는데 작용하는 어휘의미구조는 기본의미, 갈라진의미, 뜻빛갈을 비롯한 매개 어휘들이 가지고있는 어휘의미구조이다.

어휘의미에서 기본의미는 1차적인 지시적의미이고 갈라진의미는 기본의미로부터 갈라져나온 2차적이며 보조적인 의미이다. 때문에 일반적으로 어휘들사이에 기본의미가 비슷하면 뜻비슷한 관계가 이루어질수 있다. 그러나 기본의미가 같지 않으면서 갈라진의미에서 어느 하나의 공통성이 있을 때에는 뜻비슷한 관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실례로 동사 《참다》와 《견디다》는 기본의미의 공통성으로부터 뜻비슷한 관계를 이루지만 《참다》와 《이기다》는 기본의미가 전혀 다른것으로 하여 비록 갈라진의미의 일부가 비슷하지만 뜻비슷한 관계를 이루지 못한다.

그러나 갈라진의미의 유사성이 모든 경우에 다 뜻비슷한 관계를 이루지 못하는것은 아니다. 그러한 관계는 같은 갈라진의미라 하여도 그것의 대상론리적개념이 어휘의 기본의미와 어느 정도 밀접한 련관관계를 가지는가 하는데 따라 결정된다.

실례로 명사 《길》의 기본의미는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오가도록 길게 난 공간이지

만 그로부터 갈라진의미는 전혀 다른 단어들이 뜻비슷한말을 이루게 한다. 즉 《물길을 따라 가다.》, 《자주의 길로 나아가다.》, 《나쁜 길에 들어섰다.》 등의 문맥에서 쓰인 《길》의 뜻비슷한말은 방향, 방도, 품성 등과 관련된 말들이다.

이처럼 뜻비슷한말은 기본의미와 갈라진의미 그리고 뜻빛갈에서의 의미적연관성을 기본의미구조로 하고있다.

어휘의미론에서는 보통 이러한 의미구조를 겹침구조라고 하며 뜻같은말과 함께 뜻비슷한말을 여기에 포함시켜 논의하고있다.

실례로 《원, 갈비, 가축》과 《동그라미, 갈비뼈, 집짐승》들은 기본의미가 똑같고 뜻빛갈에서도 아무러한 차이가 없기때문에 완전한 일치로 겹침구조가 이루어진다.

그러나 기본의미에서만 같고 뜻폭이나 뜻빛갈에서 차이를 가지고있는 《죽다 - 사망하다, 서거하다, 돌아가다, 희생되다, 전사하다, 별세하다, 하직하다, 웨지다, 즉사하다》등과 같은 뜻비슷한말들사이에는 기본뜻인 《목숨이 끊어지거나 생명을 잃다.》라는 부분이 겹쳐지고 높이거나 낮춤, 경멸의 뜻빛갈이 겹쳐지지 않는 부분으로 되고있다.

겹침의 의미구조에 따르는 뜻비슷한말을 다음과 같은 몇가지로 구분해볼수 있다.

우선 기본의미가 겹쳐지고 일부 미세한 뜻에서 차이나는 부류이다.

이러한 겹침구조를 가지는 뜻비슷한말은 가장 전형적인 부류라고 말할수 있다. 그것은 적지 않은 뜻비슷한말이 기본의미에서 공통성을 가지고있으면서 미세한 뜻의 차이로 의미적연관관계를 이루고있기때문이다.

조선어에 풍부하게 발달되어있는 본딴말들과 높임과 낮춤관계를 나타내는 뜻빛갈어휘들이 모두 이러한 부류의 어휘들이다. 이와 함께 앞불이나 뒤불이와 같은 덧불이의 첨가에 의해 뜻빛갈의 차이를 가지는 어휘들도 이 부류에 포함될수 있다.

○ 바들바들 (몸을 작게 떠는 모양을 나타내는 말)

봉남이는 할머니의 품에 꼭 안겨서도 몸을 바들바들 떨었다.(총서 《불멸의 력사》중 장편소설 《근거지의 봄》중에서)

○ 부들부들(몸을 크게 떠는 모양을 나타내는 말)

안동학은 부르친 두주먹과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다.(총서 《불멸의 력사》중 장편소설 《1932년》중에서)

실례문들에서 《바들바들》과 《부들부들》은 다같이 《사람의 몸을 떠는 모양을 나타내는 말》이라는 대상론리적의미의 공통성을 가지고있으면서 떠는 정도에서의 차이를 모음대립으로 표현한 본딴말이다.

이러한 본딴말이 뜻비슷한말로 되는것은 기본의미(사람의 몸이 떠는 모양)에서 류사성을 가지고있으면서 미세한 차이뜻(떠는 정도)을 가지고있는것과 관련된다.

밝은모음 《ㅏ》로 이루어진 《바들바들》이 작은 사람이나 사물이 작게 자주 떠는 모양을 나타낸다면 어두운모음 《ㅓ》로 이루어진 《부들부들》은 큰 사람이 온몸이나 그 한 부분을 크게 떠는 모양을 나타낸다.

○ 집-택, 밥-진지, 아버지-아버님, 어머니-어머님(존경)

○ 얼굴-낯가죽, 머리-대가리, 눈-눈깔, 배-배때기(낮춤)

실례에 들어있는 어휘들은 같은 대상이나 현상에 대한 사람들의 감정이나 태도를 나타내는 기능을 수행하는것들이다.

교제의 목적에 맞는 여러가지 감정, 정서가 동반되는것은 진술의 통신적효과를 더욱 높여주는데 이바지한다.

감정정서의 표현성에는 대상, 현상에 대한 이야기하는 사람의 여러가지 평가적립장 즉 존경, 애무, 겸손, 친밀, 풍자, 조소, 경멸, 멸시, 증오, 질책, 정중, 정숙, 엄숙, 낮춤, 알잡음, 홀함, 속됨 등 뜻빛갈들이 실현된다.

이러한 뜻비슷한말에는 신체부분을 나타내는것들과 친척관계, 남녀관계 등을 비롯한 사람들의 생활에서 가까운 생활용어들과 늘쓰는말들에도 적지 않게 들어있다.

○ 불다

발갡다: 빛갈이 산뜻한 맛이 나게 불다.

발그맹맹하다: 격에 어울리지 않게 발그스름하다.

발그죽죽하다: 트인 맛이 없이 발그스름하다.

발그속속하다: 수수하게 발그스름하다.

발그스름하다: 조금 발갡다.

발그레하다: 좀 곱게 발그스름하다.

발그무레하다: 엷게 발그스름하다.

발긋하다: 산뜻하게 불다.

실례에 들어있는 어휘들은 모두 형용사 《불다》에서 뒤불이의 첨가에 의해 파생된 어휘부류이다. 이러한 어휘들은 《붉은색》이라는 기본의미를 축으로 하여 뒤불이가 나타내는 뜻빛갈에 따라 미세한 의미차이를 나타내고있다.

또한 단어들이 가지고있는 기동뜻들사이에 의미적공통성이 이루어지는 부류이다.

실례로 《견디다》와 《참다》가 뜻비슷한말이라는데 대해서는 누구나 인정하고있다. 그러나 이 단어들의 의미구조를 분석해보면 개념의 동일성문제가 제기된다.

단어 《견디다》와 《참다》는 다같이 《마음속의 느낌이나 상태를 나타내지 않고 애써 누르다.》라는 기본뜻에서 공통성을 가지고있다.

그러나 단어 《견디다》는 《웃음》이나 《눈물》과 같은 생리적현상과 관련하여 잘 쓰이지 않는 단어결합적차이를 가지고있다.

○ 웃음을 참다, 눈물을 참다 (옴음)

○ 웃음을 견디다, 눈물을 견디다 (틀림)

한편 단어 《견디다》는 미세하게 《배겨내다》, 《참다》는 《억누르다》의 뜻이 강조되면서 뜻에서의 약간한 차이를 나타내고있다.

○ 하고싶은 말도 참다.(억누르다)

○ 시련을 견디다.(참다)

이것을 이 두 단어들에 대한 뜻풀이를 놓고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

○ 견디다[동](자.타)

① 어려움이나 괴로움을 잘 참거나 배겨내다.

|| 더위와 추위를 ~. 시련을 ~.

② (어려운 조건이나 현재의 상태를) 유지해나간다.

|| 그는 자기가 며칠밖에 견딜수 없다는것을 알면서...

③ (어떤 작용을) 능히 극복하거나 당해내다.

|| 산과 알카리에 ~.

④ (승부를 다투는데서) 상대방을 이기거나 누르다.

|| 수적으로 우세한 적을 ~.

- ⑤ (어떤 행동상태와 관련하여 흔히 《~르수 없다》형으로 쓰이어) 참기 어려운 심리상태가 강하게 일어나다.

|| 고향이 보고싶어 견딜수 없다.

○ 참다[동](타)

I

- ① (어떤 생리적현상이나 병적상태를) 애써 억누르고 견디여내다.

|| 웃음을 ~. 아픔을 ~.

- ② (어떤 심리적현상이나 충동을) 의지의 힘으로 스스로 이겨내다.

|| 욕해주고싶은것을 ~. 복받치는 감정을 ~.

[D] (어떤 언행이 일변하던것을) 스스로 억누르며 이겨내다.

|| 하고싶은 말도 ~.

II

(자동사로 쓰이어) 《스스로 견디여서 어떤 때나 기회》를 기다리다.

|| 한해만 더 ~

두 단어의 뜻구조에서 볼 때 단어 《견디다》는 《참다》의 뜻들가운데서 두번째 기동뜻인 《스스로 견디여서 어떤 때나 기회를 기다리다.》와만 어울릴수 있다. 즉 《한해만 더 견디다 / 한해만 더 참다》

한편 단어 《참다》는 《견디다》의 ①뜻과 어울려 쓰일수 있다. 즉 《더위와 추위를 참다/ 견디다. 시련을 참다 / 견디다.》

이렇게 보면 두 단어 《견디다》와 《참다》가 뜻비슷한말을 이루는것은 이 두 단어의 의미전반이 아니라 독립적인 뜻사이에 겹침구조를 이루는것과 관련된다고 볼수 있다.

이처럼 단어들사이의 뜻비슷한 관계는 단어들 그자체사이에서가 아니라 단어들이 가지고있는 독립적인 뜻들사이에 맺어지는 의미적관관계라고 말할수 있다.

이러한 어휘부류는 명사에 속하는 단어들보다 형용사나 부사와 같은 정도성의 차이를 나타내는 단어들에서 흔히 볼수 있는데 례하면 형용사 《곱다》와 《아름답다》, 《기쁘다》와 《즐겁다》와 같은것을 들수 있다.

단어 《곱다》와 《아름답다》사이의 뜻비슷한 관계도 의미구조를 놓고 보면 더 명백히 알수 있다.

○ 곱다[형]

- ①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대상이) 마음에 들게 아름답다.

|| 얼굴이 ~. 장미꽃이 ~. 목소리가 ~.

[D] 귀하고 사랑스럽다. 고운 자식 매로 키우다.

- ② 만져보는 느낌이 썩 보드랍고 거칠지 않다.

- ③ 상냥하고 부드럽다.

|| 문화어로 곱게 말하다. 성품이 비단같이 ~.

- ④ 보람있고 훌륭하다.

- ⑤ (《곱게》형으로 쓰이어) 얹전하게 또는 점잖게.

|| 밥을 곱게 먹다. 잠을 곱게 자다.

- ⑥ (《곱게》형으로 쓰이어) 조금도 다치지 않고 고스란히.

|| 곱게 놓여 나오다.

- ⑦ (《곱게》형으로 쓰이어) 순조롭게 또는 순순히.



|| 곱게 순응하다. 두말없이 곱게 물러가다.

- ⑧ 《《곱게》형으로 쓰이어》 정당하고 떳떳하게.

|| 마음을 더럽히지 않고 곱게 살다.

- ⑨ 《《곱게》형으로 쓰이어》 손색이 없이 알뜰하게.

|| 자식을 곱게 키워 혁명에 바치다. 그릇을 곱게 쓰다.

- ⑩ 《《곱게》형으로 쓰이어》 흔적도 없이 모조리.

|| 기를때가 곱게 지워지다. 떠돌던 버릇이 곱게 없어지다.

○ 아름답다[형]

- ① 사물현상의 상태나 모양이 조화를 이루어 마음에 만족한 느낌을 자아낼 만큼 이쁘고 곱다.

|| 아름다운 목란꽃. 아름답게 꾸린 거리.

- ② 들리는 소리가 감정정서에 맞게 조화를 이루어 마음에 만족한 느낌을 자아낼만 하다.

|| 아름다운 노래소리.

- ③ (사람들사이의 관계 곧 언행, 소행, 덕행, 도덕, 동지애, 협조정신 등이) 사람들의 지향과 요구에 맞게 바르고 훌륭하다.

|| 아름다운 애정. 아름다운 동지애. 아름다운 이야기.

단어 《곱다》에서 《아름답다》와 의미적연관을 이루는 뜻은 ①뜻이다. 즉 《얼굴이 곱다/아름답다.》, 《장미꽃이 곱다/아름답다.》, 《목소리가 곱다/아름답다》이다.

그런가 하면 단어 《아름답다》의 뜻가운데서 《곱다》와 뜻비슷한 관계를 맺는 뜻은 ①의 일부와 ②이다. 즉 《아름다운 목란꽃/고운 목란꽃》, 《아름다운 노래소리/고운 노래소리》이다.

이처럼 개념의 외연이 대부분 합치되는 단어들에서는 의미구조상에서 볼 때 대부분의 의미가 겹쳐지는것으로 하여 뜻비슷한 관계가 설정되게 되는것이다.

뜻비슷한말은 어휘론의 범주에 속하는 개념이며 이것은 뜻비슷한말에 뜻이 비슷한 단어부류뿐아니라 성구도 포함시킬것을 요구하고있다.

성구는 둘 또는 그 이상의 단어들인 하나의 단어처럼 함께 쓰이면서 하나의 통일적인 뜻을 나타내는 공고한 단어결합이다. 성구가 나타내는 전일적이고 통일적인 뜻은 개별적인것으로 떼어낼수없이 묶이여 하나의 단어나 단어결합으로 파악된다.

실례로 《아니나다를가》, 《수박겉핥기》 등과 같은 성구들은 각각 《아니다 + 다르다》, 《수박겉 + 핥다》의 의미로가 아니라 《파연》, 《사물현상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고 결만 피상적으로 보는것》이라는 형상적인 의미를 나타낸다.

이처럼 성구는 형상성이 높고 표현정서적뜻빛같이 짙은것으로 하여 언어의 표현성을 높이는데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런데 이러한 조선어의 적지 않은 성구들은 개별적인 단어들과 뜻비슷한 관계를 맺고있다.

실례로 《같은 값이면》, 《결이 오르다》, 《눈치를 채다》 등의 성구들은 각기 《이왕이면》, 《성나다》, 《알아채다》 등의 단어들과 뜻비슷한말을 이룬다.

뜻비슷한말을 이루는 성구들은 단어나 단어결합에 비해 형상성이 높고 에두름의 의미와 같은 뜻빛갈을 가지고있는것으로 하여 문맥이나 장면에 따르는 언어의 표현성을 높이는데서 적지 않은 역할을 하고있다.

단어 《죽다》와 뜻비슷한 말을 이루는 단어에는 《사망하다, 서거하다, 돌아가다, 별세하다, 운명하다, 절명하다, 작고하다, 잠들다, 뉘지다, 빠드러지다, 거꾸러지다》 등이 있다. 한편 단어 《죽다》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성구에는 《눈을 감다, 결을 떠나다, 세상을 하직하다, 숨을 거두다, 황천객이 되다, 저승에 가다, 까마귀밥이 되다, 고기밥이 되다, 무덤에 들어가다, 목이 없는 귀신이 되다,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다》 등이 있다.

《죽다》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이러한 단어와 성구들간의 의미차이를 비교해보면 단어에 비해 성구에서 형상성이 더 높은것을 찾아볼수 있다.

실례로 단어 《죽다》라는 말은 사람들의 언어생활에서 직접 쓰이는 경우보다 에두르는 의미를 나타내는 뜻비슷한말로 많이 쓰인다.

이러한 경우 단어 《사망하다, 서거하다, 돌아가다, 별세하다, 운명하다, 작고하다, 절명하다》 등에 비해 《눈을 감다, 결을 떠나다, 세상을 하직하다, 숨을 거두다》와 같은 성구들은 형상성이 높고 에두름의 뜻빛같이 강한것으로 하여 언어의 표현성을 높이는데 효과적인 수단으로 되고있다.

뜻비슷한말을 이루는 성구들은 단어와 성구사이에서뿐만아니라 성구들 호상간에서도 뜻비슷한 관계를 이룰수 있다.

단어와 굳어진 단어결합인 성구사이에 뜻비슷한말이라는 어휘부류를 이룰수 있는 리론적기초는 뜻비슷한말이 의미적련관어라는데 있다.

어휘구조적으로 볼 때 성구는 두개이상의 단어들의 결합체이다. 그러나 성구는 단순한 단어결합인것이 아니라 단어와 같은 전일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굳어진 단어결합 즉 어휘론적단위이며 이것은 단어의 뜻과 성구의 뜻사이에 의미론적련관을 맺을수 있는 전제로 된다.

뜻비슷한말은 의미들사이의 뜻비슷한 련관관계로 이루어진 어휘부류이며 이로하여 뜻비슷한 관계는 단어와 단어사이에서뿐만아니라 그 등가물인 성구사이에도 지어질수 있는 것이다.

조선어에 풍부하게 발달되어있는 많은 성구들은 실지 구체적인 언어생활속에서 문맥이나 장면에 따라 단어들을 대신하여 쓰이면서 언어의 표현적효과를 높이는데 적극 이바지하고있다.

- 리명구는 조타실에서 모사수신기에 찍혀나오는 일기도를 지켜보며 장밤 눈을 불이지 못하였다.(총서 《불멸의 향도》중 장편소설 《력사의 대하》중에서)

실례문에서 《눈을 불이다》는 《잠을 자다》는 뜻을 나타내는 성구이다. 만일 우의 문장에서 《눈을 불이다》라는 성구가 아니라 단어결합 《잠을 자다》로 썼다면 조금도 잠을 자지 못한 사실을 생동하게 강조하기 어려울것이다.

- 그는 여태 모든 잘못을 남에게 넘겨놓고 자기는 강건너 불보듯이 해왔다는 자책이 울컥 치밀어올랐다.(총서 《불멸의 력사》중 장편소설 《1932년》중에서)

실례문에 쓰인 성구 《강건너 불보듯이》는 벌어지는 일이 잘되건 못되건 직접 관계하지 않고 방관시하는 립장에서 무관심한 태도를 취하는것을 비겨 이르는 말이다.

실례문에서는 《무관심하다, 관계하지 않다》와 같은 단어나 단어결합이 아니라 우와 같은 성구를 씌으로써 모든 잘못을 남에게 넘겨놓고 아무 관계없는듯이 살아온 주인공의 심리상태를 생동하게 묘사할수 있었다.

이처럼 단어와 성구사이에 뜻비슷한 관계가 이루어지는것은 성구가 단순한 단어결합

인것이 아니라 전일적인 뜻을 나타내는 굳어진 단어결합이기때문이다.

뜻비슷한말의 본질적특성은 둘째로, 문맥에서 얻어지는 립시적인 뜻이나 단어의 형상적인 뜻사이에 이루어지는 일시적인 련관어들은 배제한다는데 있다.

문맥에서 얻어지는 립시적인 뜻들은 일정한 장면과 환경속에서만 통하여 쓰는 일시적인 뜻이다.

문맥에서 여러번 반복되어 쓰이어 적어도 사전적인 의미로까지 자리를 차지하고 사람들의 언어의식에 문맥을 떠나서도 리해될수 있는 뜻이라야 두 의미사이에 겹침관계가 이루어질수 있다.

단어 《곱다》와 《아름답다》의 의미사이에 겹침관계가 설정되는것은 사람의 얼굴의 아름다움과 관련되어 같은 뜻을 나타낸다는 일반언어의식의 작용에 의한것이며 이것은 한두번의 문맥에서의 쓰임에 기초한것이 아니다.

다의적단어들의 여러개 뜻사이에 뜻이 비슷한 겹침관계를 설정할수 있는것도 이 뜻들이 립시적이며 일시적인 사용상의 뜻이 아니기때문이다.

형상적인 뜻에는 일시적인 뜻도 있지만 그 단계를 벗어나서 언어의식에 완전히 자리를 차지하고 쓰이는 뜻도 있다.

형상적인 비유의 대상은 경우에 따라 달라지며 류사한 대상, 현상은 하나가 아니라 여럿일수 있고 앞으로 더 설정될수 있다는 조건은 직접적명명과 형상적인 명명사이에 뜻같은 관계, 겹침관계가 성립될수 없는 리유이다. 형상적인 뜻들은 대체로 문맥적인 뜻비슷한 관계로 이루어지는것이 보통이다.

의미적으로 설사 뜻비슷한 관계에 놓인다 하더라도 단어나 성구가 아닌 단어결합이나 아직 성구라고 말할수 없는 형상적인 표현들사이에 이루어지는 뜻비슷한 관계에 놓이는 말은 뜻비슷한말이라고 할수 없다.

이와 함께 품사가 서로 다른 단어들사이에 이루어지는 뜻비슷한 관계에 놓이는 단어들도 뜻비슷한말로 볼수 없다.

물론 문체론에서는 우의 경우를 다 문체론적류의어로 본다.

문체론적류의어는 구조-형태론적관점에서가 아니라 론리-의미론적관점에서 설정한 개념이다. 따라서 품사소속이 다르고 문법구조가 같지 않다고 하더라도 문체론적류의어로 되는 경우가 있다.

례를 들어 품사소속이 다른 《전체》(명사)와 《모두》(부사)가 단어결합 《전체가 달라붙어》, 《모두 달라붙어》를 문체론에서는 문체론적류의어로 인정한다. 또 부사 《용감히》와 형용사의 상황형 《용감하게》도 서로 다른 품사이기는 하지만 문체론적류의어로 본다.(《문체론》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주체99(2010).)

문체론에서 설정한 문체론적류의어는 언어사용과정에 나타나는 언어의 모든 단위(단어, 성구, 토, 문장성분, 문장 등)에 있는 뜻비슷한 요소를 의미하는것으로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언어표현의 효과성의 견지에서 설정된 문체론적범주이다.

그러나 이 글에서 론하는 뜻비슷한말은 어휘론적범주로서 정적인 상태에서 본 어휘론적단위이다.

이런 의미에서 언어사용과정에 일시적으로 뜻이 같아져 일정한 문맥에서만 대신하여 쓸수 있는 언어적수단들(일명 문맥적뜻같은말)은 뜻비슷한말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례를 들어 은유법으로 널리 쓰이는 《곰》이나 《땅크》가 그러한 성질을 가진 사람과 문맥적인 뜻비슷한 관계에 놓인다고 하여 《곰 ≈ 사람》이나 《땅크 ≈ 사람》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것이다.

뜻비슷한말의 본질적특성을 밝히는데 기초하여 그 본질을 다음과 같이 규정할수 있다.

뜻비슷한말은 기본뜻이나 갈라진뜻에서 서로 겹침관계에 놓이는 단어나 성구와 같은 의미적련관어이다.

뜻비슷한말의 본질에 대한 이 정의는 다음의 세가지 내용을 포괄하고있다.

① 뜻비슷한말은 의미구조의 측면에서 볼 때 겹침구조를 이루는 어휘부류이다.

② 뜻비슷한말은 단어뿐아니라 성구까지 포괄하는 어휘부류이다.

③ 뜻비슷한말은 단어나 성구가 가지고있는 의미들사이의 공통성에 기초한 의미적련관어이다.

뜻비슷한말의 본질을 리해하는데서 그 한계를 정확히 구분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뜻비슷한말이 단어들이 가지고있는 기본의미, 갈라진의미들간의 뜻비슷한 련관관계에 의해 맺어진 어휘부류인것만큼 그 계선을 가르는것이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게 된다. 즉 어휘들간에 어느 정도로부터 얼마만 한 정도에까지 의미의 겹침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뜻비슷한말로 보겠는가 하는 문제이다.

뜻비슷한말이라는 언어학적개념은 어휘들의 의미적련관관계로부터 출발하여 제기되는것이고 그것을 언어학적술어로 설정하는 목적은 어휘들의 의미론적부류를 과학적으로 갈라내자는데 있다. 이런데로부터 의미구조적으로 련관된 정도에 따라 어휘들을 뜻비슷한말로 보는가 마는가 하는것이 확정되어야 한다.

어휘들사이에 맺어지는 의미구조적련관정도를 과학적으로 판별할수 있는 기준이 바로 의미성분화분석에 따라 얻어지는 의미특징들사이의 관계이다.

실례로 명사 《아버지》와 이 단어와 뜻비슷한 관계에 놓이는 《아버님》, 《애비》를 의미성분화분석에 따라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다.

아버지 = 사람 + 직계 + 1세대우 + 남성

아버님 = 사람 + 직계 + 1세대우 + 남성 + 존경

애 비 = 사람 + 직계 + 1세대우 + 남성 + 멸시

의미성분화분석을 통하여 보면 《아버님》이나 《애비》는 중성적단어 《아버지》가 가지고있는 모든 의미특징들을 다 가지고있으면서 뜻빛갈을 나타내는 《존경》이나 《멸시》의 의미특징을 차이뜻으로 가지고있다.

이처럼 뜻비슷한말에서 대다수의 의미특징들이 서로 겹치고있으면서 뜻빛갈을 나타내는 의미특징이 차이뜻으로 존재하는것을 알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의미특징의 많고적음으로 뜻비슷한말을 규정할수 있다는것을 의미하는것은 아니다. 다시말하여 의미성분화분석에서 공통적인 의미특징이 많다고 하여 다 뜻비슷한말로 된다는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가령 단어 《소년》과 《소녀》는 성분분석방법에 따르면 각각 다음과 같이 해석할수 있다.

소년 = 사람 + 년소 + 남성

소녀 = 사람 + 년소 + 녀성

우의 성분화분석에서 두 단어 《소년》과 《소녀》는 많은 공통적인 의미특징(사람, 년소)을 가지고있다.

그러나 이 두 단어는 겹침구조를 이루고있는것이 아니라 상반구조를 이루고있으며 뜻비슷한말도 아니다.

이것은 뜻비슷한말의 겹침구조에서 의미특징의 량과 함께 질이 고려되어야 한다는것을

보여준다.

물론 《소년》과 《소녀》에는 실질적의미특징들인 《사람》이나 《년소》가 공통적으로 들어간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두 단어의 의미특징에서 남녀를 나타내는 《남성》이나 《녀성》은 한정적의미특징으로서 종차적기능을 수행하고있다.

때문에 이 두 단어에서 남녀별은 다른 의미특징에 비해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며 이것으로 하여 두 단어는 뜻비슷한 관계가 아니라 뜻반대관계에 놓이게 되는것이다.

현실적으로 단어 《소년》에 대해서는 《총각애, 사내애》 등과 같은 단어들이, 단어 《소녀》에 대해서는 《처녀애, 계집애》 등의 단어들이 뜻비슷한 관계를 맺고있다.

이것은 어휘들간의 뜻비슷한말의 표식을 찾자면 기본의미구조의 본질적의미특징과 일치되는것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것이 기본징표로 된다는것을 보여준다.

《소년》과 《소녀》의 본질적의미특징은 《사람》이나 《년소》가 아니라 한정적의미특징인 《±남성》이라고 할수 있다.

의미소에서 의미특징의 성격은 절대적인것이 아니라 상대적이다. 그것은 의미특징이 의미소에 대한 논리적인 분석의 결과이기때문이다.

실례로 의미소 《소년》의 한정적의미소는 의미소 《소녀》와의 관계에서는 남녀별을 나타내는 《+남성》이지만 의미소 《청년》과의 관계에서는 나이를 나타내는 《+년소》로 된다.

이처럼 중심적의미특징과 한정적의미특징의 결합이 시차적기능을 수행하는 관계에 놓이는 어휘부류는 뜻비슷한 관계가 아니라 반대로 뜻반대관계로 된다.

그러나 뜻비슷한말에서는 중심적의미특징이 공통적이고 전제적의미특징이 시차적성분으로서 차이를 나타내고있다.

의미소 《줄줄》, 《줄줄》, 《쫄쫄》의 중심적의미특징은 《물줄기가 흐르는 소리나 모양》이다. 그러나 전제적의미특징은 《작게》, 《순하게》, 《빠르게》 등으로 서로 구별되며 이것이 시차적기능을 수행하고있다.

조선어에서는 본판말에서 이러한 경우를 쉽게 찾아볼수 있다.

의미소 《아장아장》의 전제적특징은 《아이》이고 의미소 《어정어정》의 전제적특징은 《나이많은 어른》이다. 중심적의미특징은 다같이 《사람이 걷는 모양》이다.

여기서도 전제적의미특징이 시차적기능을 수행하며 두 단어의 공통성분은 중심적의미성분으로 된다.

의미소 《깍쟁이》와 《구두쇠》의 중심적의미특징은 《남에게 린색한 사람》으로서 공통적의미특징으로 되며 전제적의미특징은 각각 《리속에 밝다》, 《아끼다》로서 미세한 차이를 나타낸다.

그러나 동사인 경우에는 행동의 객체가 전제적의미특징으로서 구별적표식으로 된다.

동사 《가꾸다》와 동사 《기르다》의 중심적의미특징은 다같이 《잘 자라게 보살피다》로서 공통성분을 이루지만 전제적의미특징은 각각 《식물》과 《동물》로서 시차적성분으로 된다.

이처럼 뜻비슷한말의 표식을 찾는데서 의미특징은 평균적으로 작용하는것이 아니며 뜻비슷한말을 구별해보는데서는 기본의미구조의 본질적의미특징을 놓고 정확히 따져보아야 한다.

### 3. 결 론

조선어뜻비슷한말에 대한 연구는 조선어어휘론을 완비하며 사회언어생활을 고상하고 문명하게 발전시켜나가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지난 시기 어휘론분야에서는 뜻같은말과 뜻비슷한말의 한계를 명백히 긋지 못하고 있었으며 이로 하여 개념규정과 갈래구분에서 아직까지 과학성과 일치성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로부터 뜻같은말에 뜻비슷한말을 포함시켜 논의해왔는가 하면 파생뜻에서의 문맥적인 일치성만을 기준으로 뜻비슷한말을 규정해왔다.

뜻비슷한말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가져야 언어실천에서 적중한 어휘를 가지고 다양하고 구체적인 현실에 대하여 생동하고 정확하게 표현할수 있다. 이로부터 뜻비슷한말에 대한 깊이있는 연구는 어휘론연구에서뿐아니라 언어교육과 사전편찬학을 비롯한 다른 분야의 연구에서도 중요한 측면을 이룬다고 말할수 있다.

뜻비슷한말에 대한 연구를 보다 심화시키면 언어교육과 사전편찬학 그리고 문학예술 작품창작을 비롯한 사람들의 언어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수 있다.

앞으로 우리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전원회의에서 제시된 강령적과업을 받들고 조선어의 우수성을 더욱 발전풍부화시켜나가기 위한 과학연구사업을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강국건설에 적극 이바지하여야 할것이다.

실마리어 뜻비슷한말, 뜻같은말, 언어교육, 사전편찬, 동의어, 류의어